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너, 우리

김소영

■ 학습목표

- 공동체의 중요성과 연대성의 개념을 알 수 있다.
- 공동체 안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목상 음악, 올 한 해 일어났던 사건을 담은 뉴스 기사, 선물과 선물 주머니, 색깔 필기구

■ 교리 시간

- 50분

시작 기도

임하소서 임마누엘(가톨릭 성가 93번)

도입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모두 소개해 보세요.

공동체는 나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인원이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모임을 말합니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가정, 학교 동아리, 우리 반, 팬클럽, 동호회, 중학교 동창회, 트위터 친구, 주일 학교, 우리 성당, 우리가 사는 지역, 국가, 가톨릭 교회 등 우리는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든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일반 집단이나 모임과 달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개인이나 자기 공동체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세상에 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회 교리에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 세상에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개

초대 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 성경에서 찾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해 보세요.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사도 2, 42-47)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사도 4, 32-35)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



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공동체의 일치(로마 15, 1-7)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여주세요.

작업1

CQ를 높여라!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채워 보세요.

- 소외된 공동체원이 있을 때 _____
- 아픈 공동체원이 있으면 _____
- 좋은 일이 생기면 _____
- 의견을 모아야 하는 일이 생기면 _____
- 다툼이 생겼을 때 _____
-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_____
- 공동체에 필요한 물건들이 생기면 _____
- 우리 공동체가 아닌 이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_____
- 새로운 사람이 공동체에 함께하고자 할 때 _____
- 서로를 대할 때 _____
- 공동체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_____
-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_____

- 새롭고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_____
-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_____
- 리더를 뽑을 때 _____
- 그 밖에 여러분이 문항을 만들어 필요한 덕목을 채워 보세요.

기업, 정치, 학교라는 말 뒤에 ‘공동체’를 붙이면 좀 더 인격적으로 느껴지며 연대감이 생깁니다.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좋은 지향을 두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좋은 공동체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을 적어 보았는데,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목록들은 공동체 지수 CQ(Community Quotient)를 점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지수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며,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람의 지성이나 감정 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인 IQ, EQ 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뿐 아니라, CQ를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

날로 더욱 긴밀해지고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호 의존성에서, 공동선은—곧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오늘날 더욱더 전 세계적인 것이 되고 거기에 온 인류와 관련되는 권리와 의무를 내포하게 되었다. 어떠한 집단이든 다른 집단의 요구와 정당한 열망, 더욱이 온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략) 그러므로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여야 한다. 사물의 안배는 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셨을 때에 이를 가리키신 것이다. 사회 질서는 날로 발전하며, 진리에 토대를 두고, 정의 위에 세워져 사랑으로 활력에 넘쳐야 한다. 또한 자유에서는 날로 더욱 인간적인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정신의 개혁과 더불어 광범한 사회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묘한 섭리로 시간의 흐름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이러한 발전을 도와주신다. 또한 복음의 누룩이 인간 존엄의 역누를 수 없는 요구를 마음속에 불러일으켰고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26항)

그리스도의 계명에 충실한 교회는 그 업적을 통하여 항상 현존하며, 빈곤한 사람이 모욕을 당하지도 않고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이지도 않고 인간 존엄성의 발전을 통하여 자신의 상태에서 일어나도록, 교회는 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하느님께 무한히 감사드리면서, 관심 깊은 애덕은 교회 안에서 한번도 결여된 일이 없으며 오히려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의 많은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고 긍정해야 한다. 특별히 자원 봉사에 대하여 논해야 하는데, 교회는 그것을 격려하며, 그것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모든 이의 협조를 자극하고 촉구한다. 최근에 와서 만연된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성과 애덕의 투신이



요청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부부의 상호로부터 시작해서 후손들의 배려에 의하여 상호간에 실천되는 것이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회회칙 「백주년」 49항)

인간들은 날 때부터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기에 공동으로 살아야 하며, 상호 선익을 도모해야 한다. 인간의 공동생활은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에 그 권리들과 의무들은 서로 존중되고 잘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는 그런 권리들과 의무들이 더욱 성실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되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기여해야 한다.(교황 요한 23세 사회회칙 「지상의 평화」 31항)

작업2

희망뉴스 TOP5

올 한 해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을 찾아 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 ① 각자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씩 맡아, 그 달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골라 봅시다.
- ② 그 일을 함께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공동체에 초대하고 싶은 이는 유명한 사람, 주변 이웃 모두 포함)
- ③ 공동체가 협력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 ④ 해결 방법을 바탕으로 절망적인 사건을 희망적인 뉴스로 바꾸어 발표해 봅시다.

우리는 연대성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연대성’이란 모든 사람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단단히 묶어 주는 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끈은 서로를 속박하지 않고 더욱 행복하게 하는 사랑과 존경의 끈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류가 그런 연대의 끈으로 묶여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연대성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이나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겠다는 결



심입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회회칙 「사회적 관심」 38항 참조) 연대성을 가진 이들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친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대가 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작업3

성탄 선물 키트 나누기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세 사람도 별을 따라 가는 길에 함께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여행길을 함께했기에 어려움을 극복했고, 외롭지 않았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얻은 뒤, 더 큰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황금, 유향, 몰약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 기도, 희생이 아닐까요?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공동체 또한 함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 ① 성탄 선물을 어디로 보낼지 결정합니다.(아기 예수님을 뵈 수 있는 가난한 곳)
- ② 친구들과 함께 선물 키트에 넣을 것을 상의합니다.
- ③ 실제 선물도 좋고, 기도, 선행, 재능 등을 적어서 넣어도 좋습니다.
- ④ 실제로 보낼 수 있어도 좋고, 구유 예물로 바쳐도 좋습니다.

느낌 나눔과 생활 적용

오늘 교리 시간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봅시다.

- 교회의 여러 공동체를 알아보기
- 같은 공동체원을 위해 기도하기
- 우리 공동체에 초대하고 싶은 이를 찾아 연락하기
- 시간과 지향을 정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
- 공동체가 함께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선행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 위기를 겪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로만 여기지 않기
- 화해가 필요한 공동체원에게 진심을 담은 크리스마스카드 보내기



생명의 말씀

-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 18).
-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 20).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 13. 14. 16).
- 필요할 때에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에페 4, 29).
-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임금을 존경하십시오(1베드 2, 17).

정리

칠레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에서 구조된 33명의 광부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69일 동안 그들은 잘 견뎠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합의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단합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지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절망과 불화를 겪기도 하고, 의견이 일치 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나 혼자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고,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 성탄에 아기 예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침기도

구세주 빨리 오사(가톨릭 성가 91번)

<참고 자료>

-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정의평화위원회 www.caritasseoul.or.kr/jungpyung
- 교황 요한 23세 사회회칙 「지상의 평화」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 교황 바오로 6세 사회회칙 「민족들의 발전」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회회칙 「사회적 관심」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회회칙 「백주년」

김소영 세실리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개포동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교구 중고등부 사목부의 교육부 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프로듀서와 매체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다.